

/ 뉴스초점 / 광주·현대차 자동차 공장 설립 급제동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노동계 반발 막고 설득 현대차·광주시 신뢰 쌓아야

민선 7기로 공 넘어가
합작법인 설립 협상 계속
부작용 최소화 노력

급물살을 타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자동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달 내 투자 협약 조인식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나 당분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이 기업 경영에 공동 참여하는 첫 시도라는 부담감,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 현대차 노조의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복지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에 매력을 느껴 광주 투자 의향을 밝힌 현대차와의 협약 체결은 민선 7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광주시는 18일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 진지하게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9일로 알려진 투자 협약 조인식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민선 6기 임기 내 투자 협약 조인을 위해 지난 1일 이후 매주 3차례 협상을 계속하며 이견을 좁혀왔다.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의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업단지를 방문한 현대차 관계자들도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은 신속하게 진척됐다.

하지만 20일도 안 되는 시간에 자동

차 대기업이 2대 주주로 합작법인에 투자하고, 광주시가 1대 주주로 운영을 맡는 구조에 대한 상호 신뢰를 쌓기는 역부족이었다. 합작법인 근로자의 임금 기준 자동차공장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노사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운영해갈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뒤늦게 노출됐다. 합작법인 내 노조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산성 등을 내세우며 업계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협상 중간에 발목을 잡았다. 현대차 노조가 끝까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경영진의 투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대차도 노조를 설득하는데 더 시간을 쏟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양측은 협약 조인서 서두르기 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부 협상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선 7기로 공이 넘어가면서 합작법인의 전체적인 구성 및 이후 추진에 있어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시 관계자는 “19일 협약 조인식이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연기나 취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일정 농촌 부분은 없는 것이지,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 안전장치를 좀 더 신중하게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답답한 90분...통쾌한 반란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 스웨덴 그란크비스트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컵 스웨덴과 첫경기 0-1 아쉬운 패배 대회 첫 도입 비디오 판독으로 PK 허용 실점 16강 가는 길 험난...24일 멕시코전 꼭 이겨야

신태용호의 ‘통쾌한 반란’이 실패로 끝났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8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0-1로 졌다. <관련기사 7·20면> ‘깜짝 기용’된 조현우(대구)의 선방쇼가 펼쳐졌지만 무던 찬이 상대 골대를 뚫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4-3-3 전술로 스웨덴에 맞섰다. 예상대로 김신욱(전북)이 최전방 중앙을 맡았고,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은 각각 좌우에 배치됐다.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재성(전북),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중원에 섰다. 또 포백 카드를 꺼내든 신 감독은 왼쪽에 박주호, 중앙에 김영권과 장현수,

오른쪽에 이용을 세웠다. 여기에 컨디션 좋은 조현우가 스웨덴전 수문장으로 낙점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달구벌 데헤야’ 조현우는 애정에 어울리는 활약으로 전반전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 초반은 한국의 흐름이었다. 전반 3분 황희찬이 저돌적인 돌파로 첫 코너킥을 만들었다. 1분 뒤에는 박주호(울산)가 상대 반칙에 넘어지면서 프리킥 기회가 왔다.

결정력은 부족했지만 초반 스웨덴을 압박한 한국. 하지만 전반 12분 김신욱이 경고 카드를 받은 뒤 스웨덴의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전반 20분 골키퍼와 마주한 스웨덴 마르쿠스 베리(알라인)가 슈팅을 날렸고, 조현우가 다리로 공을 막아냈다.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도 잠시, 한국을 괴롭혀 온 ‘부상 악령’이 본선 무대에도 찾

아왔다. 전반 27분 공을 살리려고 뛰어들어 박주호가 왼쪽 허벅지를 잡고 쓰러지면서 김민우(상주)가 급히 투입됐다. 이후 한국이 두 차례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조현우가 바빠졌다.

전반 42분 기성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제치있는 태클로 공을 쳐내면서 상대 역습을 막았지만, 1분 뒤 스웨덴의 ‘주장’ 안드레 아스그란크비스트(크라노노다르)의 슈팅이 나왔다. 벼락같은 슈팅을 막아낸 조현우는 2분의 추가 시간에도 공을 쳐 내고, 품으면서 전반을 0-0으로 끝냈다.

후반 10분에도 조현우가 골대로 달려들어가던 올라 토이보넨(톨루즈)의 헤딩 슈팅을 쳐냈지만 페널티킥의 벽은 넘지 못했다. 후반 20분 위헨지역에서 공을 쳐내려던 김민우가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선방 패레이드를 했던 조현우였지만 키커로 나선 그란크비스트의 발을 막지는 못했다.

후반 22분 김신욱을 대신해 정우영(고베)이 투입됐고, 5분 뒤에는 구자철이 빠지면서 ‘막내’ 이승우(베로나)가 월드컵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순위 (18일 현재)					
	승	무	패	득/실	승점
멕시코	1	0	0	1/0	3
스웨덴	1	0	0	1/0	3
한국	0	0	1	0/1	0
독일	0	0	1	0/1	0
6월 18일	독일 0 : 1 멕시코				
	스웨덴 1 : 0 한국				

무대에 데뷔했지만 한국은 유효슈팅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16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진 한국은 멕시코(24일 0시), 독일(27일 오후 11시)이라는 더 높은 벽을 두드리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양상블 디토 공연
- 관객과 하나 된 열정의 선율 ▶16면
KIA 타이거즈 전담대
- 양현종, 5연패 타이틀을 구하라 ▶21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WITCH TO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연일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비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톤), 복합연비(도시/고속/종합):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연비(도시/고속/종합):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